

공무국외여행심사회의록

안 건	1. 공무국외여행계획안 1	
회 의 일 시	2018. 9. 10.(월) 14:00 제2회의실	
심 의 위 원 (7 명)	참 석 (6명)	비고
	위 원 장 임말숙	불참위원 김재선
	위 원 원영숙 김상수 이은경 문다현	
	이동성	
	간 사 조순득	
	사무직원 정연욱	
의 결 결 과	속 기 사 이동수	
	원안가결	

1. 공무국외여행계획안

○위원장 임말숙 (14시 11분 회의시작)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안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정팀장은 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조순득

심의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수목적 및 추진방향입니다.

이번 국외연수는 해상공관·해안개발·영상산업·재난대응 분야 등에 대한 우수사례 발굴과 의회 운영 및 한인 사회와의 교류협력 방안을 찾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해상공관 자원을 둘러보고 운영사를 방문하여 현재

우리 구가 추진할 예정인 수영강 리버크루즈 사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재난대응·관광·영상산업·의회 운영 등 우리 구 현안사항과 관련이 있는 시설을 둘러보고자 합니다. 또한 LA카운티에 있는 글렌데일시와 우호도시 체결을 위한 사전 방문 및 한인 사회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해운대 관광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팀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3개 팀을 구성하여 공무국외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며 일본팀과 싱가포르팀이 계획이 완성되지 않아 오늘은 미국팀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문단은 이명원 의장을 단장으로 의원 10명, 직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월 28에 출발하여 10월 7일에 도착하는 여정이 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캘리포니아 북부에 위치한 도시로 실리콘 밸리(Silicon Valley)를 중심으로 미국 경제를 이끌고 있어, 실리콘 밸리 현장을 둘러볼 계획입니다. 또한 'Red and white Fleet'라는 해상관광 유람선 운영사를 방문하여 우리 구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공모를 통해 운영하고자 하는 수영강 리버크루즈 사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여러 영화 촬영지를 방문하여 관리 실태 및 관광 자원화 방안을 발굴하고, 인근에 최근 대형 산불이 난 요세미티 국립공원 관리소를 방문하여 산불이 난 임야에 대한 사후 처리 방법 및 관리 실태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드림웍스 등 영화사 방문을 통해 우리 구에 있는 각종 영화 관련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지진 관제센터, 베니스비치 해안 위락시설 등 우리 구에 적용할 만한 사례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스앤젤레스시 글렌데일시의회를 방문하여 의회 운영 및 교류방안을 모색하고, 한인 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재미교포의 해운대 방문을 적극 유도하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수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연수에 따른 연수경비 산출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6의 규정과‘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제4조2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였으며, 환율은 9월 5일 기준으로 1달러당 1,137원입니다. 경비는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당초 편성된 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하며, 부족예산은 자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연수 효과에 대해서는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연수 결과는‘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제9조에 따라 우리 구 의회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말숙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드린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다현 위원

이동성 교수님이 먼저 길을 좀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말숙

이동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성 위원

예, 이동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의 국외연수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하는 이유는 ‘To see is to believe’,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물과 현상을 보고 그 차이를 통해서 인간은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 초대 대통령도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정세를 판단하면서 국내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외연수는 필요한 부분이고, 특히 해운대구청이 추구하는 관광, 영상, 이런 분야와 맥을 같이 하는 일정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말숙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다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다현 위원

예, 문다현입니다.

지난해에 공무국외연수 심사를 봤었는데 당시에 결과보고서를 구의회 홈페이지에 올려놨다고 하셨는데 양이 많아서 그게 잘 안 열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들어가 보니 파일이 비었다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접근성을 좀 높여주시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는 이유가 국외여행에 대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들을 갖추려면 그런 기본적인 조건부터 조금 더 접근성을 갖추어서 방금 이동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정치라는 부분들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의정활동이고, 시민의 대리자, 이런 것 같아도 (임말숙 위원장을 지칭하며)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그 많은 공부 속에서 의정활동의 내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이동성)교수님의 말씀대로 많이 본다는 것이 의정에 정말 중요한 도움이 되고, 그 부분이 결국 시민의 삶의 질을 담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파일이 비어서 제가 컴퓨터 여러 군데를 다 들어가 봤는데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국외연수를 많이 가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목적대로 결과보고서가 정리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인이 좀 어려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연수경비 부분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인당 350만 원 이내 지급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족예산은 자부담으로 대체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행경비와 관련한 산출에 자부담을 처음부터 넣어서 구성하면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막상 가면 돈이 부족해서 자부담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부담을 하는지 알 수가 없고 이런 부분들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원래 보조금들을 받을 때 프로포절(proposal)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기본적으로 자부담 비율이 15% 이상 2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350만 원의 20%이면 70만 원의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어떤 정부 보조금과 달리 예외 없이 국외연수도 그런 자부담 비율을 기본적으로 산입을 해서 전체 경비가 어떠하다는 것들을 시민들에게 얼마든지 예산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준비도 있으면 어떨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행경비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보면 가시는 의원님들 숫자가 열 분이 넘으셔서...

○위원장 임말숙

10명입니다.

○문다현 위원

열 분이세요?

○위원장 임말숙

예.

○문다현 위원

350만 원이면 3,500만 원인데, 여행사를 선정하는 방식이 수의계약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입찰방식을 거치신 건지... 이런 부분들도 투명하게 정리를 해서 이 부분들이 우리 세금을 쓰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여러 가지 경로를 확보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비교견적, 이런 것들까지 다 같이 해서 여행사들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됐다는 이런 것까지... 이 두 가지의 조건적인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 연수일정 4번에 보면 실리콘 밸리 방문 등등 해서 정말 이번에는 하루하루가 일정이 아주 잘 잡혀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도 공식일정을 매일매일 한 개 내지 두 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서 가지고 이 내용들이 정말 공부와 의정활동이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사실이 그러하시고요. 그 내용들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운대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 영화와 관련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지진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라니냐 현상이라고 해서 여러 분이 아시다시피 해수면 저온 현상 때문에 토네이도나 허리케인, 이런 것들을 자주 침범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난에 대한 대응시스템이 어떠한가, 특히 우리 해운대는 원전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시스템, 이런 것들을 결과보고서에 잘 정리해 주시면 굉장히 유익한 연수가 될 것 같고요. 작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혐오시설이라고 표현하면 참 그런데, 인풋(input)과 아웃

풋(output)이 어떻게 제대로 정리되는가, 이 부분인데요. 멋있는 관광도시 해운대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그 도시들은 어떻게 잘 정리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같이 시스템을 좀 보고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의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쓰레기, 특히 화장실 관리,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관광도시에 걸맞은 위상들이 만들어지려면 아웃풋도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정도로, 나중에 결과보고서와 관련해서 우리 해운대가 가지고 있는 현안과 이 국외연수라는 부분의 목적이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세부 일정을 정리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말숙

문다현 위원님, 작년에 이어서 매년 오실 때마다 인풋하고 아웃풋,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소도시의 나름대로의 특징, 그리고 혐오시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생활정치로서 직접적인 쓰레기의 처리방법이라든지 거리 청소, 이런 부분을 굉장히 꼼꼼하게 잘 짚어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대로 결과가 꼭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 그리고 자부담이 최소 15%는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이 공식적으로 표시가 나게끔, 구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끔, 가능하게끔 그런 부분도 공식화하라는 그런 내용, 입찰방법... 이런 부분이 현재로는 뒤에 나온 것처럼 이번에는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입찰로 인해서 다가갔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수의계약도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한인회와, 우리 의원들 중에 인맥을 총동원해서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에 직접적인 통역, 우리가 사무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생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한인회와... 이번에는 굉장히 좋은, 늘 하는 얘기지만 다른 때와 다르게, 특별하게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답변에 대한 부분은, 문다현 위원님이 적당히 말씀하신 이 부분을 우리 팀장님이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들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으면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릴 것이고...

○의정팀장 조순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말숙

답변을 간략하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일정 부

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 팀장님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한 번 더 듣겠습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의정팀장 조순득

먼저 경비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은 350만 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고요. 직원들은 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15%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40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베드(bed)를 줄이고, 음식을 좀 더 줄이고 해서 현재로 30만 원 정도 더 부담하기로, 타이트(tight)하게 했는데 아마 현지에 가면 더 들 것 같습니다. 결산하고 주민들한테 보여지는 공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도 생각해봤습니다. 350만 원 예산범위에서 한 게 아니고 의원님들의 자부담이 50만 원 정도 더 늘었는데 그것까지 공표하면 어떨겠느냐 했더니 이때까지 예산에 대해서만 공표의 의무가 있어서 관행대로 해 왔는데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심사숙고[深思熟考] 해서 다시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청소 시설이나 화장실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보고 오면 되는데, 청소관련 시설을 사실 미국에는 관공서가 우리처럼 열려있지가 않더라고요. 가면 접촉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관공서를 정할 때도 미국에 아는 인맥을 동원해서 겨우 잡은 시설인데, 쓰레기 자원 관련해서는 별도의 스케줄을 잡으려면 인원이라든지 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추가로 더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간 김에 저희들이 눈으로 담아올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다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문다현 위원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레인지(arrange)한다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너무너무 고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민도가 워낙 이 해외연수에 대해서 외유성이라고 해서 반납하는 추세에 있기도 하고, 시의회도 이번에 일본에 가면서도 원전 축정기, 그거까지 들고 가신다고 뉴스에 난 것을 봤습니다. 그만큼 눈높이에 맞는 세금의 용도, 사용,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픈된 결과물, 이런 것들이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정말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갖추어야 될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 잘 다녀오십시오.(웃음)

○위원장 임말숙

문다현 위원님이 노심초사[勞心焦思] 하는 부분을 충분히, 1인 국외연수비가 350만 원 정도 되면, 우리가 자부담 추가는 하지만 일반 구민이 봤을 때 곱지 않은 시선, 특히 향간에는 업무파악까지 다 됐느냐, 두 달 만에 그러지 않느냐고 하는데 8대 의회 들어서서 지금 공휴일을 포함해서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에 연구단체라고 해서 자체로 공부를 하는 연구단체를 하나 구성하자고 해서 이번에 조례에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때도 다 열심히 하고 했지만 지금 민에서 보는 시선이 굉장히 높아진 것도 맞고요. 또 의회에 들어와서 그 바람대로 의원님들께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아는 만큼 보이기도 하지만 보는 것이 그만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부탁하신 대로 가서 열심히 잘 하고 오실 겁니다. 총언도 해 주셔서 이런 것을 충분히 참고로 해서 더 숙지해서 열심히 하고 올 겁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입니다. 앞에서 두 분이 다 말씀해 주시고, 저는 기본적으로 바깥에서 우리 구민들이 보는 시야들의 기대치가 높고, 그리고 구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상당히 해운대의 발전을 위해서 이번 8대 의회에 대해 거는 기대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의회 활동을 하시고 실제 예산에 이렇게 공무국외여행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개인적인 시간이나 그런 것을 다 들어서 고생해서 가시는 것도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유성이다, 어쩔다 하는 비판에 맞닥뜨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도 그런 여러 가지 점에서 좀 더 우리가 발표하는 것도 딱 350만 원 정도의 세금에서 나오는 예산만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도 우리가 아는 것과 보는 것과 실제 경험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명, 한 명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같이 가서, 같이 보면서 열이면 열 명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또 거기에서 옥석을 가리게 되고, 더 나은 새로운 안건들을 찾아낼 수 있고... 저도 작년에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결과가 어떻게 보고가 됐을까 싶어서 오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았어요. 사실 들어가는 경로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국내외 활동이라고 한 데에 들어가고 없고, 의정활동 갤러리에 들어가고 없고, 뭔가 찾는 게 어려워서 정말 고생하시고 보고서를 내기까지 거의 책 한 권 정도의 보고서를 내셨을 텐데, 또 그런 것들이 의정활동에 많이 반영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실 의정활동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앞서서, 저는 오늘 회의에 참석해 줄 수 있느냐고 의견을 묻는 것에서 일정표를 보고 가능하다고 했지만 사실 어디를 가는지, 몇 명이나 가는지, 이번에 어떤 코스로 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저희들이 알고 온다면 여기에 와서 좀 더 충언도 할 수 있고, 좋은 아이디어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참석한다고 할 때는 그만큼 깊이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는 물었어요. 어디에 가느냐고 하니까 LA쪽으로 간다고는 말씀하셔서, 하지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조금 더 일정에 대한 것을 미리 사전에 참석할 위원에게 이야기해 준다면 우리도 조금 더 들어가서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회의에 참석한다면 좀 더 내실 있는 회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의장실에서 사전에 잠깐 미팅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항상 여행사들이 패키지 중심으로 하고 인원이 30~40명이 돼야지 움직이는 데도 경비가 싸고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분야가 다르고 보려고 하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이번에 가시는 분은 열 분 내외로 가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패키지로 가기가 참 힘들고 거기에서 가고자 하는 어떤 한두 군데를 따로 만들어서 가는 것도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지의 한인들이나 그 도시에서 정말 오랫동안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직접 통역도 하고, 사전에 미리 충분히 조인(join)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짜고,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하나 개발하는, 그런 차원이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되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다른 구에다가도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세부 일정표를 보는 가운데... 기간이 짧은 기간은 아니에요.

금요일에 가서... 8박인가요?

○의정팀장 조순득

7박10일입니다.

○이은경 위원

7박10일입니까? 일주일 정도인데, LA와 샌프란시스코를 가는 걸로 돼 있고, 물론 요세미티 국립공원도 방문하는 것은 있지만... 어떤 부분은 그 시간대가 빠듯하겠단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보니까 여기를 다녀오면 너무 시간 여유가 많이 남겠단 스케줄표도 보여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론 여기에는 이렇게 제출하시고 더 디테일하게 짜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세부 일정에 대해서는 가시기 전에 디테일하게 짜시면 어떨까 하는... 그리고 가셨을 때 무엇에 대해서, 무엇을 보고자 하시는 것인지, 의원님들이 사전에 다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가시리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은, 이 일정표상으로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라면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이거는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우리가 시의회하고 협약을 맺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글렌데일시의회하고 우호교류도시로 협정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 시 차원에서 교류가 되고, 우리 부산 같으면 후쿠오카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는데, 우리 부산하고 LA하고도 돼 있나요?

○의정팀장 조순득

LA랑 부산광역시랑 돼 있고요. 저희는 LA에 있는, 우리로 치면 구췌췌. 글렌데일시라는 거기와 우호도시를 맺어보려고 지금 사전조사차 가는 겁니다.

○이은경 위원

아~ 그럴습니까? 그거는 보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제가 공무국외심사를 몇 년간 하면서 봤을 때 이런 한인회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되는 것은 없었던 걸로 봤어요. 그런데 우리 교포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하고, 또 그쪽에서 우리 해운대를 방문할 수 있는, 역교류할 수 있는 것들도 추진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점은 상당히 좋은 취지이고, 우리가 격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정팀장 조순득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교포들 중에서도 역이민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살고 싶은 도시가 해운대라고 해서 이번에 가시는 분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있는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예.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참 격려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가면서도 좀 뒤흔치고, 가면서도 내가 좀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가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외유성이나 구민들의 시선에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아까 문 위원님의 말씀대로 경로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조금 더 투명하고, 알려줄 수 있는 루트(root)가 제대로 됨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의정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하는 것을 느낄 겁니다.

저는 죄송스럽지만 구의회의 홈페이지를 이번에 처음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열면서 보니까 정말 구의원님들이 쉴 시간이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매일매일 간담회가 있더라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건들을 내서 만들어온 것을 보면서, 경비내역을 보더라도 거의 매일 일정이 쫓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8대 구의회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어긋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만 조금 더 투명하게, 일정도 더 세밀하게,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의원님들이 가시면서 밑에 직원분들이 몇 분 같이 가시기는 하는데 나중에 보면 만드는 거라든지 모든 보고서는 직원들의 몫으로 던져지고, 의원님들은 좀 빠지는 이런 일은 없이 의원님들도 일정한 역할을 맡으셔서 보고서를 만든다거나 할 때도 직원들에게만 미루지 말고 같이 동참해서, 여행 일정 중에서도 수시로 간담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위원장 임말숙

예, 이은경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의정팀에서는 결과보고서, 이 부분이 파일이 커서 그런지 비어있다고 하시니까 이것을 한번 확인해보고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 3개 팀이고 해서,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다음 회의 때

는 회의 자료를 미리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사실 구민들의 국외연수에 대한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동료위원 중에 LA한인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 의원님이 계셔서 저희가 여행사를 통하지 않는, 외유성 연수가 아니고 우리 해운대가 가지고 있는 관광과 문화와 영상과 또 원전과 가까이에 있는 안전과 모든 것들을 결합하도록 많이 노력했고요.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있듯이 목적에 맞는 연수가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LA한인회와 연결되었는데 저희가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게 된 것은 이번 추경 때 리버크루즈 사업이라고 수영강변에 크루즈를 띄우고, 또 수영강 야간조경 사업에 대한 추경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이게 국비와 시비가 편성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이 미국의 야간 경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보고 싶어 해서 LA 방문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방문도 넣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배우고, 느끼고, 해운대에 잘 접목시키도록 노력하는 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말숙

이은경 위원님이 우리 의회에 들어오신 것처럼, 같이 생활하시는 의정팀처럼 속속들이... 홈페이지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완전히 꿰뚫고 계셔서...(웃음) 제가 한 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쓸 때라든지 이런 부분은 통상적으로 직원들이 쓰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을 가면 그다음 일정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지만 어느 룸에 같이 앉아서 오늘 봤던 것을 전체적으로 토론도 하고,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에 접목시켜서 바로바로 토론을 하면서, 메모도 하고, 또 각자 사진도 찍고 하고 있으니까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제가 갔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이번에 의원님들은 지금 주민들이 선택하신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기대에 저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예, 이동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성 위원

개인적으로 일정에 있어서는 ‘다 잘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일정의 안배는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에서도 이야기하듯이 투자 대비 효과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예산을 드린 만큼,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혈세이기 때문에 이 예산의 몇 백배의 가치를 내는 것이 연수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로스앤젤레스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일정은, 선진국의 공통점은 인문학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통해서 해운대가 나아갈 스토리텔링, 역사적인 이런 부분들도 고뇌를 해서 앞으로 온고지신[溫故知新], 옛것을 따듯하게 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그런 의미 있는 연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말숙

고맙습니다. 예, 문다현 위원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다현 위원

문다현입니다. 저도 보완하겠습니다. 우리 이동성 교수님의 말씀이 너무 멋있어 가지고...(웃음) 책에서 읽는 게 현실에서 그림이 돼서 살아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보완하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글렌데일시의회를 가시는 게 사전 방문이라고 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드린 의견대로 수영구의 구민이 울릉도에 갔더니 리프트 같은 것을 타는 데 3,000원 할인, 그때 그거를 보고 그 수영구민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 수영구청에서 우리 세금을 헛되이 안 쓰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자매결연을 맺는 사전 협약 정도의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신다면 나중에 그냥 협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협약의 내용 중에 글렌데일시의회에서 부산 해운대로 오신다면 유람선 30% 할인, 그 대신 또 부산 해운대구민이 글렌데일시 쪽에, 어

는 박물관이라든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에 들어가면 30% 할인, 이런 식의 협약도 같이 맺을 수가 있다면 해운대구민으로서 LA를 갔을 때 예상치 않게 ‘우리 해운대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구나.’하는 자부심과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항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사실 해양 휴양 관광도시라서 부산이, 아까 노인복지시설도 방문한다고 나와 있던데요. 부산의 해운대는 사실 미국의 마이애미처럼 휴양도시의 콘셉트(concept)를 많이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콘셉트는 별로 개발이 안 돼 있고, 관광도시, 이런 쪽으로 더 많이 치우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해운대의 아름다운 여러 가지 인프라와 따뜻한 기후와 날씨,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마이애미처럼 부자 노인들이 많이 와서 이 도시에 인구 유입이 더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

(의정팀장, 문다현 위원에게 다가와서 이야기 함)

노인시설이라고 여기 어디에 적혀있던데요? 없었습니까?

○의정팀장 조순득

노인시설은 이번에 없거든요.

○문다현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먼저 받은 것에 있었는가... 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제가 노인시설이라고 본 것 같아서... 아, 없었... 그렇죠? 작년도 것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 부분은 그냥 하나의 의견으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민자들이 해운대에 제일 많이 오고 싶어 한다는 그 말씀 때문에 생각이 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다 아시다시피 아세안문화원이 해운대에 있습니다. 올 9월에 개관 2주년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의외로 이민자들의 삶이 굉장히 척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사회에서 일류시민이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그 한국 동포들을 보면서, 사실 역이민을 해오면 인구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현재로서는 젊은 층이 유입되고 해운대가 자꾸 더 발전하려면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계시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신(新)남방정책의 전략적 요충지가 부산입니다. 그런데 부산 중에서도 해운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게 한꺼번에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세안문화센터가 있으니까 이민자들의 어떤 문화원이랄까... 만약에 물어보시고 가서, 이거는 공식일정은 아니신데 교포들을 보실 테니까 이민자들의 문화, 또는 현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산 해운대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가신 김에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사실 말은 남방정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세안문화센터 하나 있는 것 외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가보면 그들만의 문화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부분들이 접목될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말숙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협약을 할 때 30% 할인, 이런 부분은 참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문하는 것은 사전에 조사하러 가는 것이지 당장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또 행정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행정하고 의논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은경 위원

잘 다녀오십시오.(웃음)

(장내 웃음)

이번에 우리 김상수 위원님도 같이 가시는 겁니까?

○김상수 위원

예, 같이 갑니다.

○이은경 위원

한 말씀 하시죠.(웃음)

○김상수 위원

예.

○위원장 임말숙

김상수 위원 말씀하시죠.

○김상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워낙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우리 8대 의회는 정말 일욕심도 많고 당차고 그렇습니다. 아마 역대 어느 대 때보다 공무국외연수도 실속 있고 알차게, 우리 해운대구를 위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노력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개개인이 서로 모여서 과연 거기에 가서 무엇을 벤치마킹을 할 것이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과 협의해서, 아마 이번 공무국외연수는 결과보고서가 남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비용 문제 또한 실속 있고 짜임새 있게 서로 양보하면서, 2인 1실이 아닌 3인 1실로 하도록 그렇게도 짜여 있습니다. 그만큼 타이트하게 짜여 있습니다. 실감나게 저희들이 제대로 배워서 해운대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8대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말숙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심의위원님들이 오셨을 때 우리 해운대구의의회를 잠깐 더 소개하자면,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 저희들이 오늘 단체로, 우리 슬로건도 현장중심인데, 단체로 헌혈도 하고 왔습니다. 직접적으로 한번 체험해보고 하자고 해서 직접 참여도 하고, 저희들이 연수를 갔다 오면 심폐소생술도 직접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따로 교육도 한번 받고,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바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많이 노력할 것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해운대구의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종료)

※ 참고사항

